

오차제(*Pañcakrama*) 2장의 후대 삽입과 전승의 의미 - 사공(四空)과 관련하여

방정란

일본 대정대학교, 로버트 H.N.호 패밀리재단 박사후 펠로우

junglan.bang@gmail.com

- | | |
|--|--|
| I. 들어가며: <i>Guhyasamājatantra</i> 와 주해 전통 | IV. 세 가지 공(<i>śūnya</i>)과 팔십 가지 프라 크리티(<i>Prakṛti</i>) |
| II. Nāgārjuna의 <i>Pañcakrama</i> , 그리고 Śākyamitra의 <i>Anuttarasandhi</i> | V. PK 2장에 대한 Āryadeva와 Candrakīrti의 해석 |
| III. PK 주석가들의 오차제에 대한 해석 | VI. 이후 불교 탄트라 의 쟁점 |
| | VII. 결론 |

요약문

후기 인도불교사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떨친 바즈라야나(Vajrayāna)라 불리는 탄트라 불교는 대승불교 가르침을 수행의 토대로 삼고 있으며 스스로의 정체성을 결코 대승(Mahāyāna)의 범주 밖에 놓지 않는다. 이러한 통합과정은 단기간에 이뤄진 것이 아니기에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고는 그러한 통합과정의 발단을 추적하는 데 목적을 둔다. ‘공(*śūnya*)’을 점진적 수행의 단계로 해석하는 탄트라 논사의 주석서를 통해, 이 독특한 바즈라야나만의 해석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검토한다. 특히 중후기의 탄트라 경전을 대표하는 *Guhyasamājatantra*(『비밀집회탄트라』)의 해설서이자, 탄트라 저자인 Nāgārjuna(龍樹)에 귀속된 *Pañcakrama*(『오차제』)의 두 번째 장은 단계적 공(*śūnya*) 수행의 과정을

지혜를 의미하는 빛(āloka)이라는 용어를 빌어 설한다. 그런데, 바즈라야나의 독특한 점진적 공수행의 교설을 담고 있는 이 장은 *Pañcakrama*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로서 Śākyamitra라는 이름을 전한다. 토루 토마베치(Toru Tomabechi)의 연구가 지적하듯이, 이 같은 2장의 원저자(authorship) 문제는 중후기 탄트라 주석 전통을 이해하는 데 핵심 키워드가 된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내용을 *Pañcakrama*와 주석서들의 문헌적인 전거를 통해 살펴보고, 더불어 대승불교사의 중요한 인물들인 Āryadeva(提婆)와 Candrakīrti(月稱) 등의 동일한 이름을 지닌 탄트라 저자들이 출현하는 시대적 배경과 연관시켜 논의한다. 그리고 이들이 주석하는 *Pañcakrama*의 내용을 분석한다.

주제어

오차제(*Pañcakrama*), 탄트릭 나가르주나(Tantric Nāgārjuna), 아누타라산디(*Amuttarasandhi*), 샐카미트라(Śākyamitra), 사공(śūnya, mahāśūnya, atīśūnya, sarvaśūnya), 아리아 학파(Ārya school), 즈나나파다 학파(Jñānapāda school)

I. 들어가며: *Guhyasamājatantra*와 주해 전통

탄트라 불교, 밀교 혹은 바즈라야나(Vajrayāna, 금강승)라고 불리는 인도 후기 불교는 기원후 4-5세기를 전후로 각종 불보살을 공양하는 의례와 성취법(sādhana) 등을 중심으로 기존의 대승 전통과는 선명한 차이점을 보이며 등장했다. 시기적인 발전 과정에서 논하자면, 중기 이후부터 이러한 의례적 수행은 유가행파과 중관학파의 교설과 접목되면서 바즈라야나만의 독자적인 체계로서 발전해 나간다. 본고는 바즈라야나의 교설적 발전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하나의 예로서, 공(śūnya)의 네 단계를 밀교 수행의 이론적 기반으로 시설하는 문헌들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본고는 특히 *Guhyasamājatantra* (『비밀집회탄트라』, 이후 GuSa)라고 하는 중기 밀교의 대표 경전에 대한 해석사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¹⁾ 왜냐하

1) GuSa에 선행하는 바즈라야나 초기의 대표적 경전들에서 공(śūnya)에 대한 기술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Sarvatahāgatattvasaṃgraha*(『진실섭경』), *Mahāvairocanaḥśambodhitantra*(『대일경』), *Paramādyā*(『이취경』)와 같은 문헌들에서 śūnya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문맥을 보았을

면 실질적으로 GuSa 자체에서 *sūnya* 혹은 *sūnyatā*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경우는 극히 적으며, 그 내용 또한 밀교적 재해석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기 때문이다.²⁾ GuSa는 Yogottaratantra(무상요가)에 속하는 문헌으로서, 총 18장으로 구성된 버전이 전해진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GuSa 연구들은 모든 장들이 한 번에 구성된 것이 아니라 시간을 거치면서 여러 층위로 형성된 것이라고 보는 데에 이견이 없다. 간략하게 두 개의 시대적 층위로 나누자면, 앞의 1장에서 17장까지를 하나로, 마지막 18장은 후기 삽입으로 본다. 이는 이 마지막 장이 따로 떼어져 *Samājottaratantra*, 혹은 *Uttaratantra* (『속탄트라』)라고 불리는 것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³⁾ GuSa의 티벳역 또한 이러한 구성 층위를 지지한다.⁴⁾ 특히 18장에는 중후기 탄트라 발전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 단서가 되는 구절들이 나타나고 있어, 후기 탄트라 저자들에 의해서도 자주 인용된다. 바즈라야나 수행론의 핵심적 사상 중 하나인 양차제(*dvikrama*)와 관련된 서술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⁵⁾ 흔히 중기 이후의 바즈라야나의 수행체계는 *utpattikrama*와

때, 탄트라만의 고유한 사상적 해석이 있다는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본고의 주제에서 제외하였다.

- 2) 이에 대한 하나의 예로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들 수 있다. *Guhyasamājatantra* 2.3 : “모든 여래의 몸과 말, 그리고 마음이라는 금강을 지닌 여래인 세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자 세존 대일여래께서 ‘모든 여래의 깨달음인 금강이라고 하는 삼매를 완성하신 후에 이러한 보리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하셨다. [계승] [대일경에 이르길] ‘모든 존재 상태를 여의고, 온, 처, 인식대상, 인식주체도 여의었으며, 범무아와 동일한 상태로 처음부터 일어난 것도 아니며, 공성을 양태로 지니는 (*sūnyatābhāva*) 자신의 마음(*svacitta*)’ [을 보리심]이라고 세존 대일여래는 말한다.” 여기서 논의되는 ‘공’이란 본래적으로 청정한 상태의 보리심을 설명하기 위해 언급되지만, 탄트라의 교설적 고유성은 경전 자체에서보다는 주석서들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원문은 Yukei Matsunaga, *The Guhyasamāja Tantra*, Osaka: Toho Shuppan, 1978), pp.9-10. 1-5줄을 참조.
- 3) 탄트라 경명에서 자주 등장하는 ‘*uttara*’라는 용어는 본 경전의 권위를 ‘잇고 있는 상위의’ 교설이라는 의미에서 사용되므로, 이 용어가 붙은 경전들은 해당 전통에서 시기적으로 후기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단 불교 탄트라 경전의 목록에서만 아니라 많은 인도 종교의 문헌명에서도 이를 자주 확인할 수 있다.
- 4) 자세히 말하자면, 1장에서 17장은 *De bzhin gshegs pa thams cad kyi sku gsung thugs kyi gsang chen gsang ba 'dus pa zhes bya ba brtag pa 'l rgyal po chen po* (D442/P81)라는 제목으로 번역되고 18장은 속탄트라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Rgyud phyi ma* (D442/P81a)라는 제목으로 따로 번역되었다. 마츠나가 유키이는 앞의 총 열 일곱 개의 장 또한 1장에서 12장까지와 13장에서 17장까지의 두 그룹으로 성립연대가 상이하다고 본다.
- 5) Harunaga Isaacson, “Ratnākaraśānti’s Hevajrasahajasyoga (Studies in Ratnākaraśānti’s Tantric works I)”, *Le Parole e i Marmi: studi in onore di Raniero Gnoli nel suo 70° compleanno*. (Roma: Istituto Italiano per l’Africa e l’Oriente, 2001), pp. 468-9.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구절인 *Guhyasamājatantra* 18.84: *kramadvayam upāśrīṭya vajrīṇām dharmadeśanā* (Isaacson의 교정, *tatra deśanā* Matsunaga 편

utpannakrama (또는 niṣpannakrama)라고 하는 양차제(Dvikrama)라는 말로 정의된다.⁶⁾ 본고의 시작에서 언급한 GuSa의 śūnya 용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dvikrama의 개념 또한 GuSa 경전 자체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이 또한 GuSa의 주해 전통 안에서 정립된 것이다. 양차제를 탄트라 해석에 안착시키는 인물은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초에 활동했던 즈냐나파다(Jñānapāda)⁷⁾로, *Abhisamayālamkāra*(『현관장엄론』)를 지은 하리바드라(Haribhadra)의 제자 중 한 명으로 알려지며, 인도 비크라마실라(Vikramaśīla) 사원의 첫 번째 학장으로, 벵갈 지역을 지배했던 팔라(Pala) 왕조의 스승으로서 왕실의 대폭적인 후원을 받았다고 기록된다. 양차제는 그의 대표 저서인 **Mukhāgama* (Toh. 1853, D15b/P18a)에서 다루진다. 그가 정립한 주해 전통 이래 이 양차제라는 큰 틀은 크게 변하지 않지만 각 차제에 포함되는 수행과의

집본) | *kramam anuṣṭhānam caiva kramam anuṣṭhānam tathā* || “두 가지 단계를 의지하고서야 금강승들의 다르마의 가르침이 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단계와 완전하게 이뤄진 단계가 [그 두 가지 단계이다.]”이 있는데, 이는 이후 *Hevajratāntra* 1.4.24c-25b (*kramam utpattikam caiva utpannakramam eva ca | kramadvayaṃ samāśrītya vajrīṇām* (ABC 사본 읽기 채택, *vajrīṇā* Snellgrove 편집본) *dharmadeśanā* ||)에서도 다시 등장한다. 하루나가 아이작슨이 지적하듯이, 이 계승들은 선명하게 중론(*Mulamadhyanamakārikā*) 24장의 8승(*dve satye samuṣṭhārya buddhānām dharmadeśanā | lokasaṃvṛtisatyaṃ ca satyaṃ ca paramārthataḥ* ||)을 상기시킨다.

- 6) 두 단계를 의미하는 *dvikrama*에서 *utpattikrama*는 ‘생기차제 (stage of generation)’이라고 *utpannakrama* 혹은 *niṣpannakrama*는 ‘구경차제 (stage of completion)’이라고 번역된다. 이중에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utpanna-* 그리고 *niṣpanna-*를 ‘구경’ 혹은 ‘completion’이라고 번역하는 것에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나, 산스크리트 원어가 지시하는 의미를 분명히 살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utpanna*와 *niṣpanna*는 각기 *ut√pad*와 *niḥ√pad*에서 나온 과거 분사(past participle)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일어난’ 혹은 ‘완성된’ 단계이라는 함축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대 번역의 문제에 대해 재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유는 ‘생기차제’와 ‘구경차제’라는 용어 자체가 양차제가 마치 개별적이며 독립적인 것처럼 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양차제는 공성에 대한 경험을 통해 진제의 경험을 하게 되는 수행자의 의식에 대한 서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연유로 양차제의 이름은 본문에서 원어 그대로 사용하였다.
- 7) Jñānapāda는 Buddhajñāna, Buddhaśrījñāna, Buddhajñānapāda, Śrījñānapāda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그에 대한 압축적인 개괄은 Péter-Dániel Szántó, “Jñānapāda”, *Brill’s Encyclopedia of Buddhism*, (Leiden/Boston: Brill, 2019), pp. 264-268를 참조. 즈냐나파다의 저작으로는 *Mañjuśrīmukhāgama* (*Dvikramatattvabhāvanā*라고도 불림, Tōh. 1853)와 *Samantabhadra* (*Caturāṅgasādhana*라고도 불림, Tōh. 1855와 1856). (*Muktitīlaka*라고 잘못된 산스크리트 제목으로 알려진) *Muktibindu* (Tōh. 1859), *Āmasādhanaṅvātāra* (Tōh. 1860), 그리고 *Mahāyānalakṣaṇasamuccaya* (Tōh. 3904) 등이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Péter-Dániel Szántó, “Early Works and Persons Related to the So-called Jñānapāda School”,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 (Belgium: Peeters, 2015), p. 540를 참조할 것.

레 행법, 그와 관련한 교설적 해석은 세부적으로 다양화 된다.⁸⁾

이 즈나나파다 학파와 함께, 탄트라 논사 아리아나가르주나(Ārya-Nāgarjuna)⁹⁾를 위시한 ‘성자류’라고도 번역되는 아리아(Ārya) 학파의 두 그룹이 GuSa의 대표적 주석전통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시기적으로 즈나나파다 학파의 성립이 아리아 학파에 앞선다. 근래의 연구 결과는 GuSa 해석과 관련해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수의 전통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II. Nāgārjuna의 *Pañcakrama*, 그리고 Śākyamitra의 *Anuttarasandhi*

티벳에서 큰 영향력을 떨쳤던 아리아 학파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헌은, 나가르주나의 *Pañcakrama*(『오차제』, 이후 PK)¹⁰⁾다. 현존하는 범어 사본이 전하는 PK는 다섯 장으로 구성된다.¹¹⁾ 그 중 *Anuttarasandhi*라고 불리는 2장은 Sarvaśuddhiviśuddhikrama(모든 청정 가운데 완전한 청정의 단계)를 설하는데, PK가

-
- 8) 즈나나파다와 아리아 학파의 양차제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의 차이와 공통점에 대해서는 Ryugen Tanemura, “Guhyasamājatantra”, *Brill’s Encyclopedia of Buddhism* (Leiden: Brill, 2015), pp. 329-330를 참조할 것.
- 9) 본고에서는 앞으로 탄트라 저자인 나가르주나를 언급할 때 따로 ‘탄트라 저자’라고 따로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중관학파의 나가르주나의 경우는 중관학파라는 서술을 첨가한다. 이는 탄트라 저자인 아리아데바와 찬드라키르티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 10) Katsumi Mimaki and Toru Tomabechi, *Pañcakrama. Sanskrit and Tibetan Texts Critically Edited with Verse Index and Facsimile Edition of the Sanskrit Manuscripts* (Tokyo: Centre for East Asian Cultural Studies for Unesco, 1994). 토루 토마베치(Toru Tomabechi)는 1994년에 그의 교토대 스승인 카츠미 미마키(Katsumi Mimaki)와 함께 PK의 비판 교정본을 출판했다. 본고는 이 교정본의 계승 번호를 기본적으로 따른다. 다만, 범어 사본의 이형의 읽기들은 모두 언급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삽입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 규칙은 본고의 다른 원문 인용에도 적용된다.
- 11) PK의 각 장은 다음의 구절로 끝맺는다. 1장 (p.13): *vajrajāpakramah samāptaḥ || kṛtir iyaṃ śrīnāgārjunapādānām iti || granthapramāṇam asya śaḍadhikasaptatiḥ || prathamakramah ||*; 2장 (p.30) *anuttarasamādhir ity aparānāma sarvaśuddhiviśuddhikramah || kṛtir iyaṃ śākyamitraprādānām || granthapramāṇam asya śatam ekam || dvitīyāḥ kramah ||*; 3장 (p.39) *svādhiṣṭhānakramas tṛtīyāḥ samāptaḥ || kṛtir iyaṃ ācāryanāgārjunapādānām || granthapramāṇam asya śaṭpañcaśat ||*; 4장 (p.48) *paramarahasyasukhābhisaṃbodhikramas caturthaḥ || kṛtir iyaṃ ācāryanāgārjunapādānām || granthapramāṇam asya ślokās catvāriṃśat ||*; 5장 (p.55) *yuganaddhakramah | kṛtir iyaṃ ācāryanāgārjunapādānām || granthapramāṇam asya ślokāḥ pañcatriṃśat ||* 밑줄은 저자 삽입

나가르주나의 저작임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저자는 샤카미트라(Śākyamitra)라고 기록된다.¹²⁾ 이는 지금의 PK가 처음부터 이러한 장의 구성으로 저작되지 않았으며, 이 장이 본저자의 이름이 남아 있는 채로 편집 전송되었던 데에는 이 샤카미트라라는 인물과 이 장의 교설이 아리아 학파에게 있어 특별한 의미 혹은 필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¹³⁾

실제로 *Anuttarasandhi*는 티벳에서 독립된 문헌으로 번역되었으며, 몇몇 PK의 주석자들은 이 문헌을 분명히 PK와 별개의 것으로서 취급한다. 예를 들면, 아리아 학파의 아리아데바(Āryadeva)는 그의 저서 *Caryāmelāpakapradīpa*(이후 CMP)에서 이 문헌을 PK와 구별하여 *Anuttarasandhi*라는 이름으로 인용한다. *Anuttarasandhi*를 독립 문헌으로 언급하는 것은 아리아 학파의 저자들뿐만 아니라 즈냐나파다 학파의 바이디아파다(Vaidyapāda)도 마찬가지다.¹⁴⁾ 또한 샤카미트라가 즈냐나파다의 *Mukhāgama*의 편집자로 언급된다¹⁵⁾는 점은 그가 아리아 학파의 성립 이전에 즈냐나 학파 전통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는 뜻이나, 정작 즈냐나파다 학파의 초기 주석가들¹⁶⁾은 이러한 교설을 거의 인용하지 않는다. āloka(빛)와 sūnya(공)로 설명되는 차제적 심청정의 상태라는 그의 이론이 오히려 아리아 학파에서 중요하게 취급되어, 아리아 학파의 수행적 토대가 되었다.

12) 위의 각주 본문의 밑줄에 해당.

13) 2장의 후대 삽입은 이미 여러 일본 학자들에 의해 언급된 주지의 사실이나 국내 연구에서는 그 자세한 내용이 소개된 적이 없는 듯하다. 이에 대해서는 Toru Tomabechi, “Vitapāda, Śākyamitra, and Āryadeva: On a Transitional Stage in the History of Guhyasamāja Exegesis.” *Esoteric Buddhist Studies: Identity in Diversity.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soteric Buddhist Studies, Koyasan University*. Koyasan University(Japan: Koyasan University, 2008), pp. 171–177를 참조할 수 있다. 토마베치는 간략하지만 확실한 문헌적 증거들을 중심으로 샤카미트라의 사상이 아리아 학파에게 어떤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보여준다.

14) 기존의 2차 자료들은 대개 Vitapāda라고 불렀으나, 실제 그의 이름은 Vaidyapāda라고 추정된다. Szántó, *op. cit.*, “Early Works and Persons Related to the So-called Jñānapāda School”, p.540-1 fn.6; 그가 샤카미트라의 저작을 인용하는 구절은 Tomabechi, *op. cit.*, pp.173-4 fn. 15-17를 참조.

15) Tomabechi, *op. cit.* p.174 fn.18

16) *Ibid.*, p.174. 즈냐나파다 학파를 계승한 주석가들 중 이러한 세 가지 sūnya와 āloka의 포섭하는 시도는 아리아 학파의 발생 이후 몇 세기가 지나 나타난다. Tomabechi는 이 같은 상대적으로 후기의 주석가와 그 작품으로서 12세기의 Vairocanavajra의 *Ṣaḍaṅgayogāloka karma*를 꼽는다.

III. PK 주석가들의 오차제에 대한 해석

나가르주나의 또 다른 저작인 *Pinḍīkrama*는 PK와 짝을 이루는 문헌으로서, 일반적으로 *Pinḍīkrama*에서는 upattikrama가, PK에서는 utpannakrama가 교시된다고 여긴다. 그러나 PK를 주석하는 저자들은 무엇이 아리야 학파의 ‘다섯 가지 차제들’인가 대해 조금씩 다른 견해를 보인다. 다시 말해, PK의 다섯 단계가 utpannakrama에 대응한다고 하는 일반적인 견해가 처음부터 정설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PK가 현재 형태로 편집되기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추적하기 위해서는 PK의 후대 주석가들의 저작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PK와 그 주석에 대한 연구는 불어로 작성된 Tomabechi(2006)의 박사논문에서 상세히 분석되었기 때문에, 본고는 그 내용을 간략히 아래의 표로 만들어 대신한다.

<표 1> PK의 주석서 목록 (Cf. Tomabechi 2006, pp.10-17의 내용 정리)

	PK의 주석서
*	Āryadeva의 <i>Caryāmelāpakapradīpa</i> ¹⁷⁾ (D. 1803, P. 2668)
1	Muniśrībhadra의 <i>Pañcakramaṭippaṇī Yogīmanoharā</i> D. (1813); P. (2691) ¹⁸⁾
2	Bhavyakīrti의 <i>Pañcakramapañjikā</i> D. (1838); P. (2696) ¹⁹⁾
3	Samayavajra의 <i>Pañcakramapañjikā</i> D. (1841), P. (2698) ²⁰⁾
4	Vīryabhadrā의 <i>Pañcakramapañjikā Prabhāsārtha</i> D. (1830); P. (2699) ²¹⁾
5	Nāgabodhi(1)의 <i>Pañcakramaṭīkā Mañimālā</i> D. (1840), P. (2697)
6	Nāgabodhi(2)의 <i>Pañcakramārthabhāskaraṇa</i> D. (1833) ; P. (2702)
7	Lakṣmī의 <i>Pañcakramaṭīkā</i> D. (1842); P. (2705)
8	Abhayākaragupta의 <i>Prañcakramataṭīkā Candraprabhā (a.k.a. Pañcakramatātparyapañjikā Kramakaumudī)</i> D. (1831), P. (2700)
9	Līlāvajra의 <i>Pañcakramavivarāṇa</i> D (1839)
10	Parahitarakṣita의 <i>Pañcakramaṭippaṇī</i> ²²⁾
*	Nāropa의 주석 (P.4789, D. 2333, P. 4790)

17) *Caryāmelāpakapradīpa*는 현재까지 두개의 비판 교정본이 출판되었다. 하나는 Sarnath에서 2000년에 출판된 Pandey의 교정본(이하 *Ped.*로 표기)이며 다른 하나는 Wedemeyer가 2007년에 출판한 교정본(이하 *Wed.*로 표기)이다. Janardan Shastri Pandey, *Caryāmelāpakapradīpa* (Sarnath: CIHTS,

여기에서 처음과 마지막 항목의 두 저작은 PK에 대한 주석이라고는 하나, PK의 구절을 직접적으로 해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마베치는 따로 번호를 매기지 않았다.

아리아데바의 *Caryāmelāpakapradīpa*(이하 CMP)는 PK의 주석서이나, 그 내용에서 PK의 원문이 나타나지 않으며, 장의 구분도 PK와는 상이하다.²³⁾ 아리아데바가 CMP의 도입부에 나가르주나의 가르침에 따라 오차제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으로(*pañcakramavispaṣṭīkaraṇārtham*) 이 저작을 짓는다고 밝히고 있지만, 샤카미트라에 의한 이론을 *Amuttarasandhi*라는 독립된 문헌으로 인용하면서 PK의 현재 전승본 2장의 이론과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한다. 이는 CMP의 저작 아리아데바가 샤카미트라에 의한 이론을 잘 알고 있었지만, 현재 전승되는 PK의 오차제에 속한 것으로는 취급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는 V장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2000); Christian Konrad Wedemeyer, *Āryadeva's Lamp that Integrates the Practices (Caryāmelāpakapradīpa). The Gradual Path of Vajrayāna Buddhism According to the Esoteric Community Noble Tradition* (New York: American Institute of Buddhist Studies, 2007).

- 18) Toru Tomabechi, “Étude du Pañcakarma, Introduction et traduction annotée”, Université de Lausanne, (PhD dissertation. 2006), p.11를 참조할 것. 그에 따르면 *Pañcakramatippaṇī Yogīmanoharā*는 12세기 말의 인물인 Muniśrībhadrā가 지은 주석으로, 티벳으로 전해져 번역된 것은 12-13세기로 기록되며, 번역자는 Dypal lo tsā ba Chos kyi bzañ po라고 한다. 20세기 초반 Rāhula Saṅkrtyāyana가 티벳을 여행하면서 팔루(Zha lu) 사원에 이 문헌의 산스크리트 사본이 보관중이었음을 보고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베이징(Beijing)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비판교정본이 아닌 전사본의 형태로 출판되어 1996년에 출판되었다.
- 19) *Ibid.* pp.11-12. 티벳 역사가 Tāranatha가 전하는 비끄라마설라 사원의 12명의 바즈라야나 확장 중의 한 명으로 알려진 Bhavyakīrti가 주석한 이 문헌은 티벳어로 번역되었으나 현재까지 범어 사본은 전해지지 않는다. 그와 함께 *Pradīpoddyotana*에 대한 그의 주석(D. 1793, P [60-61] 2658a, b)도 또한 티벳역 되었는데, 많은 부분을 PK에서 실한 실질적 수행에 대한 설명으로 할애한다.
- 20) *Ibid.* p.12. Samayavajra는 아마도 Kṛṣṇa Samayavajra와 동일인일 것으로 여겨지는데, 범어 사본이 중국의 CTRC (China Tibetological Research Center)에서 보관, 전해지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를 바탕으로 한 범어 비판 교정본은 토루 토마베치가 현재 작업 중에 있다.
- 21) *Ibid.* p.12. 이 문헌의 범어 사본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 22) *Ibid.* p.14. 티벳역은 전하지 않으며 산스크리트 사본만 전하는데, 푸셴은 그 교정본을 1896년에 출판하였다. Louis de La Vallée Poussin, *Études et textes tantriques, Pañcakrama* (Gand: H. Engelcke and Louvain, 1986)를 참조.
- 23) CMP는 총 열한 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각장의 주제는, 1. prabodhana (깨달음), 2. kāyaviveka (신체에 대한 분별), 3. vāgaviveka (말에 대한 분별), 4. cittaviveka (마음에 대한 분별), 5. karmāntavibhāga (행위의 결과에 대한 식별), 6. saṃvṛtisatya (속제), 7. paramārthasatya (진제), 8. apratiṣṭhitanirvāṇa (무주열반), 9. prapañcacaryā (희론의 행), 10. nisprapañcacaryā (희론을 떠난 행), 11. atyantaniṣprapañcacaryā (희론을 떠난 궁극의 행)으로, PK의 차례적인 단계와는 상응하지 않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Tomabechi (1992b와 2006)에서 다른 PK의 주석서들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PK의 주석 내용에 따른 세 가지 입장 (Cf. Tomabechi 2006 p.29)

A 그룹	B 그룹	C 그룹
1. Piṇḍīkrama 2. Vajrajāpakrama 3. Svādhiṣṭhānakrama 4. Abhisambodhikrama 5. Yuganaddhakrama	1. Piṇḍīkrama 2. Vajrajāpakrama 3. Cittaviśuddhikrama 4. Svādhiṣṭhānakrama 5. Abhisambodhikrama 6. Yuganaddhakrama	1. Vajrajāpakrama 2. Cittaviśuddhikrama 3. Svādhiṣṭhānakrama 4. Abhisambodhikrama 5. Yuganaddhakrama

A 그룹은 오차제를 칭할 때 *utpatti*와 *utpanna*의 양차제를 모두 포함하는 모델을 ‘오차제’라고 보는 입장이다. A의 입장을 보이는 인물에는 찬드라키르티와 위에서 언급한 무니슈리바드라(Muniśrībhadra)가 있다. 그도 현 PK 2장인 *Cittaviśuddhikrama*(심청정차제)를 *Anuttarasandhi*라는 독립된 문헌으로 인용한다. B의 입장은 *Piṇḍīkrama*를 따로 떼지 않고 *Pañcakrama*의 부분으로 주석하며, 결국 오차제가 아니라 육차제로서 주석하는 그룹이다. 여기에는 바브야 키르티(Bhavyakīrti), 사마야바즈라(Samayavajra),²⁴⁾ 아바이카라굽타(Abhayākaragupta), 리라바즈라(Līlavajra) 등이 속한다. C 그룹은 현재 PK의 구성과 동일하게 *utpannakrama*를 구성하는 다섯 개의 차제를 주석하는 그룹으로, 여기에는 비르야바드라(Vīryabhadra), 서로 다른 두 명의 나가보디(Nāgabodhi), 그리고 카슈미르(Kashmir) 출신의 락슈미(Lakṣmī) 등이 속한다.²⁵⁾

샤카미트라 이론은 아리야 학파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 이론적 토대였지만, 이 같은 PK 주석자들의 해석 차이가 보여주듯, 샤카미트라 저작이 완전하게 PK의 부분으로서 통합되는 과정은 몇 세기에 걸쳐 일어났다.

24) Tomabechi, *op. cit.*, p. 32 fn. 7.

25) 苦米地等流, 『Pañcakrama 研究 (1)―“五”次第の構成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40卷 2號(東京: 日本印度學佛敎學會, 1992), pp. 895-892.

IV. 세 가지 공(śūnya)과 팔십 가지 프라크리티(Prakṛti)

PK 2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당신에게 귀의합니다. 당신에게 귀의합니다. 당신에게 귀의합니다. 귀의합니다! 이와 같이 당신에게 귀의한다고 경배할 때 경배하는 자는 누구이며 경배 받는 이는 누구인가. 여기 이 찬양에서 [경배하는 자는] 스스로 자신의 고유한 인식(jñāna)을 봐야만 한다. 마치 물에 물을 붓고, 기름을 기름에 붓는 것처럼. 하지만 전지자의 길에 이르지 않고는 [=붓다의 가르침이 없이는] 이를 얻을 수 없다. 어둠이라는 장막에 둘러싸인 자는 [전지자의 길이라는] 은총을 통해서 [그 어둠을 물리칠] 등불을 얻을 수 있다. 결과와 원인이라는 구분에 따라서 [그 등불의 첫째는] Śūnya(공), [둘째는] Atiśūnya(극공), 세 번째는 Mahāśūnya(대공)이며, 네 번째는 Sarvaśūnya(일체공)[라 한다.] 지혜와 방편의 결합으로부터 획득(upalabdha)이 완성된다. 그 획득이 완성됨으로부터 광명(prabhāsvara)라고 하는 Sarvaśūnya(일체공)가 [생겨난다]. 세 가지 인식작용(vijñāna)에 의해서 [이같은 단계적] 원인의 순서에 따라 청정해진다. 세 가지 공 [의 단계]와의 결합으로부터 위없는 경지가 얻어진다.²⁶⁾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 공과 그를 초월한 경지인 Sarvaśūnya라고 하는 총 네 단계에 대치할 수 있는 각각의 요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6) PK 2.1-7 p.15 : *namas te 'stu namas te 'stu namas te 'stu namo namaḥ || evaṃ stute namas te 'stu kaḥ stotā kaś ca saṃstutaḥ || yathā jalaṃ jale nyastaṃ gṛtaṃ caiva yathā gṛte | svakīyaṃ ca svayaṃ paśyej jñānaṃ yatreha vandanā || kiṃ tu sarvajñagatibhir vinā tan nopalabhyate | tamaḥpaṭalasaṃchannaḥ (em., -saṃchannaṃ M&T ed.) prasādād dīpaṃ āpmuyāt || śūnyaṃ ca atīśūnyaṃ ca mahāśūnyaṃ trītyakam | caturthaṃ sarvaśūnyaṃ ca phalaḥetuprabhedataḥ || prajñopāyasamāyogān niṣpannam upalabdhakam | upalabdhāc ca niṣpannāt sarvaśūnyaṃ prabhāsvaram || hetukramaviśuddhaṃ tu vijñānatrayayogataḥ | śūnyatrayasamāyogāl labhyate 'nuttaram padam ||*

〈표 3〉 PK의 2장에서 설하는 śūnya와 āloka 단계

공(śūnya)	빛(āloka)	hetukrama	인식(vijñāna)	삼성	이제
śūnya	āloka	prajñā	citta	paratantra	Saṃvṛti
atiśūnya	ālokābhāsa	upāya	caittasika	parikalpita	
mahāśūnya	ālokopalabdhi	upalabdha	avidyā	pariniṣpanna	
sarvaśūnya	prabhāsvara	-	-	-	Paramārtha

CMP에서 *Amuttarasandhi*라는 출처로 인용되기도 한, 이어지는 PK 2장의 내용은 이 단계에 대해 상술한다.

[자신을 스스로] 아는 것(saṃvitti)일 뿐인 인식(jñāna)은 마치 허공과 같이 자성을 지니지 않는다. 하지만 그 [지혜]는 분점(sandhyā), 낮, 밤의 특징에 의해서 나뉘인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지혜의 현현으로서] 마음은 āloka, ālokābhāsa, ālokopalabdhi(=ālokopalabdhi)²⁷⁾라고 하는 세 가지로 설해지며 그 [마음]의 토대(ādhāra)는 [다음과 같이] 설해진다. 미세한 형태의 숨[=일반적으로 風이라고 번역되는 호흡]과 결합한 인식은 감각 기관의 길을 통해 나와 인식 대상을 접한다. 숨이 빛(ābhāsa)과 결합하여 흐르게 되면, 바로 그 때에 그 [빛에 속한] 모든 성질(prakṛti)들이 활성화된다. [즉,] 어디든 호흡이 머무는 곳에 각각의 성질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숨의 에너지가 활성화되어 있는 이상 빛(ābhāsa)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²⁸⁾

27) 이 세 가지 빛, āloka, ālokābhāsa, ālokopalabdhi을 원어의 의미에 따라 풀이해 보자면, ‘은은하게 반짝이는 빛’, ‘반짝이는 빛의 나타남’, ‘확실한 인식될 정도의 반짝이는 빛’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최종적으로 이 세 가지 단계를 초월해 진계(paramārtha)에 속하는 순수의식은 prabhāsvara (clear light)이다. 물론 이 최종적 상태에서 prabhāsvara라는 말은 이 문헌뿐만이 아니라 이전 대승 문헌에서 보리심과 여래장을 설명하는 주요 개념이다. 결국 이들은 빛의 광채가 더해질수록 마음의 본래 청정이 회복되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뒤에서 살펴볼 주석서들의 설명과도 일치한다.

28) 관련 계승은 PK 2.28-32이며, CMP의 경우는 2.32ab까지만 인용한다. : *saṃvittimātrakaṃ jñānam ākāśavad alaṅgaṇam | kiṃ tu tasya prabhedo 'sti sandhyārātridivātmanā || ālokālokābhāsau ca tathālokopalābhakam | cittam trividham ity uktam ādhāras tasya kathyate || vāyunaḥ sūkṣmarūpeṇa jñānaṃ saṃmiśratām gatam | niḥśṛtyendriyamārgebhyo viṣayān avalambhate || ābhāsena yadā yukto vāyur vāhanatām gataḥ | tadā tatprakṛtiḥ sarvā astavyastāḥ pravartayet || yatra yatra sthito vāyus tām tām prakṛtim udvahet | yavat samāraṇotsāho nābhāso nīscalo bhavet ||*

PK의 2장에서는 처음 세 가지 공 혹은 빛은 각 단계에 따라서 총 팔십 가지 prakṛti²⁹⁾가 일어난다고 설해진다. 여기에서 prakṛti는 PK의 1장인 Vajrajāpakrama (금강염승차제)의 단계에서 설해진 vāyu(숨)라고 칭해지는 신체의 호흡 에너지가 정화되어 순수의식(saṃvitti)과 결합했을 때, 다시 말해, 그러한 경험을 체득한 후, 수행자에게 자는 동안이나 깨어 있는 동안에 활성화되는 정신작용 혹은 정신적 행위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 sūnya/āloka의 단계에서는 총 서른세 가지의 상태³⁰⁾가, 두 번째 atisūnya/ālokābhāsa에서는 마흔 가지 상태,³¹⁾ 세 번째 mahāsūnya/ālokopalbadhi의 단계에서는 일곱 가지의 상태³²⁾가 나타난다고 열거된다. prakṛti들은 신체적이며 정신적인, 자증되는 감각으로서 정의되는데,³³⁾ Śūnya/Āloka의 단계는 niśa(밤), strī(여성), mandākāra(부드러운 형상), vāma(좌), candramaṇḍala(월륜), pañkaja(연꽃) 등의 세속의 용어로서 지시되며, Atisūnya/Ālokābhāsa는 diva(낮), puruṣa(남성), kharākāra(딱딱한 형상), dakṣiṇa(우), sūryamaṇḍala(일륜), 혹은 vajra(금강)라는 용어로 지칭된

29) PK 수행 체계에서 팔십 가지 prakṛti와 세 가지 공 혹은 지혜의 관계에 대한 관련 논문은 다음과 같다. 吉水千鶴子, 「Pancakramaにおける三智・三空とprabhasvara タンラ仏教における空性理解の問題点」, 『成田山仏教研究所紀要』 11号, (成田: 大本山成田山新勝寺成田山仏教研究所, 1988), pp.447-468.; Tomabechi, *op. cit.*, pp. 72-28.

30) PK 2.8-11에서 기술되는 서른 세가지의 심적 상태는 다음과 같다. 1-3 virāga (상중하의 이욕); 4-5 manogatāgata (심의 왕래); 5-7 śoka (상중하의 슬픔); 8 saumya (적정); 9 vikalpa (분별); 10-12 bhīta (상중하의 두려움); 13-15 trṣṇā (상중하의 갈애); 16 upādāna (취착); 17 niḥśubha (불신); 18 kṣut (배고픔); 19 trṣā (목마름); 20-22 vedanā (상중하의 수); 23 vettrvid (인식주체에 관한 인식); 24 dhāraṇā (집지); 25 pratyavekṣaṇa (관찰); 26 lajjā (수치심); 27 kāruṇya (연민); 28-30 sneha (상중하의 애착); 31 cakita (소심); 32 saṃśaya (의문); 33 mātsarya (인색)

31) PK 2.12-20에서 기술되는 마흔 가지의 심적 상태는 다음과 같다. 34. rāga (욕망); 35 rakta (염오); 36-38 tuṣṭa (상중하의 만족); 39 haṛṣaṇa (즐거움); 40 prāmodya (황홀); 41 vismaya (경이); 42 hasita (웃음); 43 hlādana (상례); 44 āliṅgana (포옹); 45 cumbana (입맞춤); 46 cūṣana (흡입); 47 dhairya (견고); 48 vīrya (용기); 49 māna (자만); 50 karṭṛ (행위주체); 51 harṭṛ (파괴주체); 52 bala (힘); 53 utsāha (인내); 54-56 sāhasa (상중하의 대담함); 57 raudra (공격); 58 vilāsa (희롱); 59 vaira (양심); 60 śubha (선); 61 vākṣpūtā (명료한 말); 62 satya (진실); 63 asatya (거짓); 64 niścaya (결정); 65 nirupādāna (불취착); 66 dātṛta (관대); 67 codana (명령); 68 sūratā (용맹); 69 alajjā (뻔뻔); 70 dhūrta (교활); 71 duṣṭa (사악); 72 haṭha (폭력); 73 kuṭila (간교)

32) PK 2.21-24에서 기술되는 일곱 가지의 심적 상태는 다음과 같다. 74. madhyarāgaṣṇa (중 정도의 애욕의 순간); 75 vismr̥ti (건망); 76 bhrānti (혼란); 77 tūṣṇībhāva (침묵상태); 78 kheda (의기소침); 79 ālasya (나태); 80 dhandhatā (금뜰 상태).

33) PK 2.12ab: *trayastrīṃśat prakṛtayah svasamvedyāḥ sārīrīnām* | ; 2.15cd *parikalpitam tathā proktaṃ proktaṃ cāitasikaṃ tathā* ||;

다. Mahāśūnya/Ālokopalabdhi는 앞선 언급된 형상들이 모두 사라져 완전하게 성취된 단계이며 이 단계에서 미세한 감각까지 알아차릴 수 있게 된 수행자는 일곱 가지의 prakṛti를 일곱 찰나라고 인식하게 된다. 이 때는 모든 숨이 신체의 어떤 구멍을 통해서도 나가지 않고 정지된³⁴⁾ 상태라고 묘사된다. 이 같은 모든 마음의 상태(prakṛti)들은 세 가지 빛(ābhāsa)에 따라 각각을 원인으로 하여 대상으로서 나타났다가 다시 최종 단계에서 광명(prabhāsvara)으로 돌아간다고 설해진다. 이는 마치 창공에 다양한 형상과 빛깔을 한 구름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에 비유된다.³⁵⁾

정리하자면, 결국 총 네 단계로 정의할 수 있는 차제적 공(sūnya) 수행은 심의 본래적 청정성을 회복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행의 기원에는 대해서는 보다 다각적인 연구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의 적어도 이와 유사한 수행을 불교 밖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샤이바(Saiva) 탄트라인 Svacchandatantra에서는 생명에너지를 나타내는 숨(prāṇa)이 미세해 지는 단계에 따라 드러나는 의식의 일곱 가지 단계를 sūnya라는 용어를 통해 기술한다. 늦어도 7-8세기에는 지금의 모습을 갖췄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샤아바 문헌의 차제적 공이라는 수행적 사조를 다루는 데 흥미로운 자료이다. 하지만 이는 본고의 주요 논의를 벗어나므로, 차후의 논의로 남겨 놓겠다.

V. PK 2장에 대한 Āryadeva와 Candrakīrti의 해석

PK 2장의 핵심 이론은 세 가지 공과 세 가지 빛로 간략하게 천명되기 때문

34) PK 2.24c-25b: *avidyāyāḥ kṣaṇāḥ sapta vijñeyāḥ sūkṣmayogibhiḥ || na bījaṃ bindusaṃyuktaṃ na vāyur dvāranirgataḥ |*

35) PK 2.39-40: *payodharā yathā naike nānāsaṃsthānavarṇakāḥ | udbhūtā gaganābhogāl layaṃ gacchanti tatra vai || evaṃ prakṛtayaḥ sarvā ābhāsatrayaḥetukāḥ | nirviśya viśayān kṛtsnān praviśanti prabhāsvaram ||*

에,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석가들의 해석이 필요하다. 본장은 앞서 언급한 주석가들 중에 특히 탄트라 논사인 아리아데바와 찬드라키르티의 주석을 통해 왜 아리아 학파에서 중관논사들의 이름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 보고자 한다.

1. Āryadeva의 *Caryāmelāpakapradīpa*

탄트라 논사 아리아데바(Āryadeva)는³⁶⁾ *Caryāmelāpakapradīpa*(CMP)라고 하는 PK에 대한 주석서를 썼다. 하지만 이 주석은 GuSa를 해석하는 PK의 이론을 푸는 데 중점을 둔 의취석 형식으로 쓰였으며, 그러므로 주석의 장들과 PK의 각장은 상응하지 않는다. 이 문헌을 전하는 산스크리트 사본들의 최종 콜로폰이 손실되어 있어 CMP라는 문헌의 이름조차도 원래의 주석명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³⁷⁾ 인도 주석가들은 이 문헌을 CMP 대신 *Sūtaka*라고 부르는데, 그 의미는 아리아데바의 CMP 망갈라 계송 중에 “오차제[의 가르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나는 *Sūtaka*를 종합하는 [주석]을 설하려 한다”³⁸⁾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Sūtaka*에 해당하는 티벳역이 ‘*mdo sde dang rgyud dang rtog pa rnam*’라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결국, *Sūtaka*는 *Sūtra-tantra-kalpa*의 줄임말인 것이다.

이같이 CMP의 특수한 성격은 주석을 하면서 아리아데바가 인용하는 경전

36) 중관학파의 아리아데바의 저작들과 분리해 바즈라야나 문헌인 CMP를 또 다른 아리아데바의 것이라고 보는 데에 학자들 사이에 이견은 없다. CMP와 더불어 동일한 아리아데바의 작품으로 여겨지는 문헌들에는 *Skhalitapramathanayuktihetusiddhi* (P. 5247), *Madhyamakabhramaghāta* (P. 5250), *Jñānasārasamuccaya* (P. 5251) 등이 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아리아데바에게 귀속된 여러 탄트라 문헌들이 전해진다. 따라서 현재까지 발굴된 탄트라 아리아데바에 귀속된 문헌들 가운데 모두 한 저자의 저작물로 보기에는 시대적으로 불가능한 작품들도 있기 때문에, 아리아데바라 명명된 탄트라 논사가 몇 명이며 어떻게 이를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37) 티벳역 제목은 D (sDe-dge)는 *tsārya me lā pa na pra dī paṃ*이라고 읽고 P(Peking edition)는 *tsarya me lā pā na pra dī paṃ*이라고 전한다.

38) *pañcakramavipaṣṭikaraṇārtham sūtakamelāpakam* (C, *sūtramelāpakam* A) *vakṣyāmi*. Pandey의 교정본은 티벳역에 따라서 *sūratatantrakalpamelāpakam*이라고 교정했으며 Wedemeyer는 사본 A를 따르나, 인도 주석가들이 이 문헌을 *sūtaka*라고 부른다는 점에서 사본 C의 읽기가 가장 정확한 독법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의 종류에서 드러난다.³⁹⁾ 자세히 말하자면, PK의 계송은 오직 단 한 곳에서 인용될 뿐이며, PK 2장인 *Amuttarasandhi*도 독립된 문헌으로서 인용된다. 주로 GuSa의 1장에서 17장까지는 *Mūlatantra*(근본탄트라)라는 이름으로, 18장은 *Samājottara*라는 이름으로 인용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PK 2장의 내용은 *Cittaviveka*라고 하는 CMP의 4장⁴⁰⁾에서 자세히 다뤄지는데, 세 가지 공의 다른 이름인 세 가지 인식(三智, *vijñānatraya*)을 정전적 가르침으로 확립시키기 위해 아리아데바는 다양한 비-바즈라야나의 문헌들을 인용한다.

한 예로, *Laṅkāvatārasūtra*(『능가경』)의 ‘보살은 자신 마음에서 드러나는 인식대상과 인식주체라는 분별의 범위를 완전히 알고자 하므로’⁴¹⁾라는 부분을 인용하면서, 마음에 현현하는 인식의 세 가지 상태가 모든 인식 대상이 되며, 여기에는 해탈과 윤회,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 인식 대상과 주체, 12 연기의 순환과 청정과 부정, 빛과 어둠, 여성, 남성 그리고 중성 등의 형상, 생기, 지속, 소멸 등, 감각으로 파악되는 모든 삼계가 바로 삼지(三智, *vijñānatraya*)라고 설명한다.⁴²⁾ 여기서 이 삼지는 세 가지 공과 세 가지 빛을 지칭한다. 이러한 비-바즈라야나의 전거들은 GuSa 계열 탄트라의 이해를 위한 초석으로서 제시된다. 이 부분에서 아리아데바는 GuSa의 석탄트라 중에 하나인 *Jñānavajrasamuccaya*⁴³⁾에서 이 삼지(三智)가 설해지고 있음⁴⁴⁾을 강조한다.

39) CMP에서 인용된 경전의 전체 목록은 Wedemeyer, *op. cit.* 2007, pp. 763-769.

40) *Cittavivekaśaṃśayamelāvaṇaparicchedaś* (Wed.의 교정, *cittavivekasaṃśayamelāvaṇa- Ped.*) *caturthaḥ*

41) CMP 4장 (Ped. p.39; Wed. *op. cit.* p. 396): *yathoktaṃ bhagavatā Laṅkāvatārasūtre, punar aparāṃ mahāmate bodhisattvena svacittadrśyagrāhyagrāhakavikalpagocaraṃ* (Wed. LAS; *svacittasya Ped.*) *parijñātukāmena* (Wed. LAS; *vijñātukāmena Ped.*) *saṃganikāsaṃsargamiddhanīvaraṇavigatena bhavitāyam.*

42) CMP 4장 (Ped. p.39; Wed. *op. cit.* p. 396): *tatra vijñānatrayahetubhūṭāḥ sakalapadārthāḥ. yad uta svargāpavargasthāvarajāṅgamaṃ grāhyagrāhakaṃ dvādaśāṅgapratītyasamutpādacakraṃ śubhāśubhavikalpam ālokāndhākāraṃ strīpunnapuṣakādyākāraṃ utpattisthitiprayalaṃ saṃkṣepatas traiddhātukaṃ indriyapracayagocaraṃ vijñānatrayaṃ syāt |*

43) 원문은 인용을 통해서만 부분적으로 전해진다. 해당 티벳역은 D. (1789) ; P. [60] (2654)이다.

44) CMP 4장 (Ped. p.41; Wed. *op. cit.* p.401) : *tasmāt śrīJñānavajrasamuccayamahāyogatantrānusāreṇa gurupādaprasādād vijñānatrayasya yathābhūtaparijñānaṃ kartavyaṃ tattantrāt kiñcid vajrapadam avatāryate.*

[Jñānavajrasamuccaya에서 다음과 같이 설한다.] 그러자, 마하살들은 세존께 경배하고 [세존의] 두발에 엎드려 다시 물었다. 오 교시자시여, 이해하기 어려우며 매우 다가가기조차 어려운 이름하여, 삼지(vijñānatraya)라고 하는 것에 대해 설해주십시오, 세존이시여, 수가타시여, 삼지(vijñānatraya)의 종류에 대해 설해주십시오.

세존께서 설하셨다. 그 분별지(vijñāna)는 바로 심(citta)이며, 마음 작용(manas)이다. 모든 현상들은 [이들을] 근본으로 하며, 염오와 청정의 본성을 지닌다. 이로부터 ‘나’ 혹은 ‘남’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분별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 분별지는 숨을 움직이는 매개로 삼는다. 그 숨(風)은 열(火)이 되고 그 열로부터 물(水)이, 그 물로부터 다시 땅(地)이, 그 (다섯 가지 오대)로부터 오온이, 육경, 오경이 있다. [그러므로] 이 일체는 그 숨 [에 실린 분별지]와 결합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삼지(vijñānatraya)는 심적인 작용(prakṛti)들과 빛(ābhāsa)이라는 모습으로 선명하게 현현한다. 빛을 원인으로 하기에 마음작용(prakṛti)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⁴⁵⁾

아리아데바의 또 다른 저작인 *Cittaviśuddhiprakaraṇa*는 삼공과 삼지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중관학과 나가르주나의 *Yuktiśaṣṭika*의 계승을 전거를 언급하지 않은 채 인용함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⁴⁶⁾ 요약하자면, CMP의 저작당시, *Amuttarasandhi*가 PK의 2장으로 완전히 포함되기 전이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샤카미트라 이론은 이미 아리아 학파의 교설을 대표하는 성격을 갖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오차제’를 설명하기 위해 CMP를 저작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 아리아데바의 오차제가 현재 전승된 PK의 모습과 동일했는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리아데바는 이 논의의 시초가 바즈라야나 이

45) CMP 2 (Ped. p.41; Wed. op. cit. p.401): *atha mahāsattvāḥ praṇamya bhagavantam* (C, *bhagavataḥ* Wed. Ped.) *pādāyor nīpatya punar api papracchuḥ | aho śāstā duravabodham vijñānatrayam nāma paramaduravagāham* (Wed. *paramadūhravagāham* Ped.) *bhāṣatu bhagavān bhāṣatu sugato vijñānatrayabhedam | bhagavān āha -yat prabhāsarodbhavam vijñānam tad eva cittam mana iti | tanmūlāḥ sarvadharmāḥ saṅkleśavyavadānātmakāḥ | tataḥ kalpanādvayam bhavaty ātmā parāś ceti | tad vijñānam vāyuvāhanam | vāyos tejas tejasah salilam salilād urvī tebhyaḥ bhāgavān bhāṣatu sugato vijñānatrayam vijñānatrayam prakṛtyābhāsapracāram parisphuṭam anubhavati | ābhāsaheṭoḥ prakṛtayaḥ sambhavanīti |*

46) *Cittaviśuddhiprakaraṇa*의 20송과 24송은 각각 *Yuktiśaṣṭikakārikā*의 제 55송과 5송에 동일하다.

전의 불교 교리에 이미 나타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작품 곳곳에 중관 나가르주나의 계승을 넣음으로써, 그를 아리야 학파의 나가르주나와 견고하게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Candrakīrti의 *Pradīpoddyotana*

탄트라 논사 찬트라키르티(Candrakīrti)에 귀속된 문헌인 *Pradīpoddyotana* (이후 PU)⁴⁷⁾는 GuSa(정확히 말하자면 1장에서 17장까지)에 대한 유일한 주석서이다. 그의 오차제에 대한 입장은 PU의 도입부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생기차제에서 시작한 그는 만트라 의 화현을 성취하게 된다. 그리고 마음의 미세한 관찰(cittanidhyapti)에 이르기 되면 이를 두 번째 차제라고 한다.⁴⁸⁾

또한 PK의 ‘금강 염송에 주하는 만트라 수행자는 마음을 관찰하는 경지에 도달해야만 한다.’⁴⁹⁾는 구절에 대해 그는 말과 마음은 동일한 본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금강염송(vajrajāpa)의 완성이 곧 심청정(cittaviśuddhi)을 함축한다고 주석한다.⁵⁰⁾ 무니슈리바드라 또한 금강염송차제를 완성한 만트라 수행자는 마음의 미세한 관찰(cittanidhyapti)을 획득하게 된다고 주해한다. 이러한 심청정 수행을 뜻하는 ‘cittaviśuddhi(심의 청정)’라는 개념은 주석서들에서 cittaviveka, cittanidhyapti라는 용어로 풀이되는데, PU는 말과 마음은 마치 ādhāra와 ādheya (substratum-superstratum)라는 포섭과 내재의 관계처럼 지탱하는 토대와 포섭

47) 범어 교정본은 Chintaharan Chakravarti, *Guhyasamājatāntrapradīpoddyotanāṭikā-ṣaṭkoṭivākyā*, (Patna: Tibetan Sanskrit Works Series, 1984) 이 있고 티벳역은 D. (1785), P. (2650)로 전해진다.

48) *Pradīpoddyotana* (Chakravarti, *op. cit.* 1984, p.1): *utpattikramam ādau syāt mantramīrtiprasādhakas | cittanidhyaptimātram tu dvitīyas kramas ucyate ||*

49) PK 1.5 (M&T *op. cit.* p.1): *vajrajāpasthito mantrī cittanidhyaptim ānpunyāt |*

50) *Pañcakramaṭṭippanī* (p.38): *vajrajāpasthita iti ko [']rthaḥ | sāksātkṛtavajrajāpasamādhistho mantrī yogī cittanidhyaptim āpnuyāt pratilabhatām | kathaṃ | ādhārādheyarūpeṇa va(!vā)kcittayor ekabhāvasthānāt |*; 원문은 Zhongzin Jiang and Toru Tomabechi, *The Pañcakramaṭṭippanī of Muniśrībhaddara. Introduction and Romanized Sanskrit Text.* (Berne: Peter Lang, 1996)를 참조.

되는 속성이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의 미세한 관찰에는 Vajrajāpakrama(금강엄송차제)와 Cittaviśuddhikrama(심청정차제)가 모두 포함된다고 하는 찬드라키르티의 입장을 따른다. 무니슈리바드라의 저작이 티벳으로 전해졌던 시기와 그가 무슬림의 지배를 피해 그의 고향이었던 벵갈에서 티벳쪽으로 거처를 옮겼다는 기록을 종합해 보면 12-13세기 무렵까지도 PK가 현재의 전승본과 다른 버전으로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Pradīpoddyotana*의 찬드라키르티도 아리아데바와 같이, PK의 나가르주나의 저작을 인용하되, 인용 출처를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즉, 아리아 학파의 나가르주나와 중관학파의 나가르주나를 따로 떼어 구분하지 않는다고 바꿔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본고에서 언급한 GuSa를 주해하는 즈냐나파다 학파와 아리아 학파의 두 전통이 모두 인도에서 발생하여 티벳으로 퍼져나갔지만, ‘아리아 학파(āryapāda)’라는 명칭으로 인도 저작문헌에서 등장하는 것은 발생 후 시간이 꽤 지난 이후라고 여겨진다.⁵¹⁾ 인도에서 주류였던 즈냐나학파를 뛰어넘어 신생 전통이었던 아리아 학파의 주해 전통이 티벳에서 주도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된 데에는 중관학의 주요 저자들의 이름으로 암시되는 아리아 학파의 ‘정통성 계승’이라는 슬로건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VI. 이후 불교 탄트라 의 쟁점

대승(Mahāyāna)으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바즈라야나는 자신들을 파라미타나야(Pāramitānaya) 보다 수승한 것으로 위치시킨다. 또한 기존의 대승 개념을 재해석하여 차별적인 밀교 수행의 이론으로 재탄생시킨다. 세부적인 공성의 이론이 불교의 다양한 학파와 수행 전통에서 조금씩 상이하게 기술되고 할지라도, 공성 자체가 불교 자체의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교리였다는 점

51) 현재까지 본고의 저자에게 접근 가능한 산스크리트 문헌 중에서 아리아 학파에 해당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12-13세기의 Ratnarakṣita의 *Samvarodaya*의 주석 *Padmīnī*에서였다.

은 또 다른 바즈라야나의 주요한 저자인 라마팔라(Rāmapāla)가 ‘불교도와 비 불교도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바로 공성의 교설’⁵²⁾이라고 주창하는 구절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수행 이론의 발전은 인도 밀교의 중후기를 지나, 후기 Yoginītantra 계열의 경전에 이르러서는 더욱 복잡, 다양화된다. 대신 그 논의의 초점은 ‘공성’ 자체 보다는 밀교 수행의 구체적인 과정과 해석에 대한 것으로 바뀐다. 한 예로, 11세기 말에서 12세기 초에 활동했던 아바야카라굽타는 PK의 주석 *Kramakaumudī*에서 네 가지 공(sūnya) 중 처음 세 가지를 지혜(prajñā), 방편(upāya), 그리고 그 둘의 결합(samāyoga)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Prabhāsvara(광명)와 Sarvasūnya(일체공)의 네 단계를 네 가지 지복(ānanda)과 네 가지 관정(abhiṣeka)과 연결지어 설명함으로써 그 의미를 확장한다. 네 가지 관정과 지복이라는 주제는 분명 GuSa 후기의 것으로, 궁극적 여성 원리를 강조하는 Śaktism의 사조는 바즈라야나 Yoginītantra 계열의 문헌들에서도 꽃을 피우는데, 이 주제는 특히 *Hevajatantra*와 그에 따른 해석 전통의 성립사와 더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즉, 네 가지 지복의 단계를 어떤 순으로 배열하는 지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다.⁵³⁾ 그러나 이러한 주제들 역시 중관학파와 유가행학파의 교설이라는 기반을 공유한다. *Samputatantra*를 주석하면서 아바야카라굽타는 ‘[유가행의] 자증을 논하는 이들은 진실/실상(tattva)이란 대략의 자증이라 말하고, 중관학자들은 [실상이란 네 번째 관정이라는] 방편을 통해 [경험하는] 일체법의 불사의한 상태(acintyatā)를 지칭한다’⁵⁴⁾고 주해한다.

52) *Sekanirdeśapañjikā* 19 중: sarvaḥ samānaḥ pravibhajyamānaḥ sūksmekṣikākāśāmadhiyā kṛtāntah | baudhahasya bāhyasya vibhāgakartrī na syād ihaikā yadi sūnyatoktiḥ || (이 문헌에 대한 세부 논의와 한글 번역은 방정란, 『불교 판트라 문헌이 전하는 샤이바(Śaiva) 의례의 도입과 해석』, 『인도철학』 제 54집(서울: 인도철학회, 2018), pp.35-63를 참조할 것.

53) 현재까지 이 주제를 다룬 연구 결과 중에 가장 괄목할 만한 출판물로 2014년에 Isaacson과 Sferra가 출판한 Maitreyaṅātha의 *Sekanirdeśa*에 대한 Rāmapāla의 주석 *Pañjikā*의 비판 교정본을 꼽을 수 있다. 특히 Introduction 부분에 상세히 논의된다. Harunaga Isaacson and Francesco Sferra, *The Sekanirdeśa of Maitreyaṅātha (Advayavajra) with the Sekanirdeśapañjikā of Rāmapāla : Critical Edition of the Sanskrit and Tibetan Texts with English Translation and Reproductions of the Mss.* (Napoli: Manuscripta Buddhica, 2014), pp. 91-111.

54) *Āmnāyamañjarī* 4 (187v3-187v5): iha ca samvedanavādinā tad eva mahāsukhasamvedanam tattvam ānuḥ | mādhyamikāsu tu tenopāyena sarvadharmācintyatām ācakṣate |

즈냐나파다와 아리아데바는 물론이고 이후의 수많은 탄트라 전통에 속한 저자들이 바즈라야나의 문헌은 물론이고, 반야 혹은 중관의 대승 경전들을 주석하며 더 나아가 심지어 문학과 운율에 관한 방대한 저술을 남겼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바즈라야나만의 고유한 이론 체계라고 할지라도 분명 그 기초는 중관과 유식의 철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염두해 바즈라야나 문헌들을 분석해 본다면 우리는 후기 인도불교의 변화상을 좀 더 여실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VII. 결론

본고는 탄트릭 나가르주나의 저작으로 전해지는 PK의 두 번째 장(Sarvasuddhivīśuddhikrama)이 샤카미트라라는 다른 인물에 귀속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동일한 두 번째 장이 다시 *Anuttarasandhi*라는 독립된 문헌으로도 전해진다는 사실에서 출발했다. 나가르주나의 이름과 병행하여 샤카미트라라는 이름이 문헌에 남게 되는 것은 이 인물이 그만큼 이 학파에 중요한 인물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PK 2장은 심청정의 단계를 기술하는 부분으로 여기에는 네 가지 공(*sūnya*)과 네 가지 빛(*āloka*)라는 아리아 학파만의 전문용어(*terminology*)가 등장한다. 이러한 수행 체계의 기술은 기존의 즈냐나파다 학파와는 분명 구별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쓰인 ‘*sūnya*’라는 표현은 바즈라야나만의 수행 체계를 기술하는 전문 술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리아 학파의 ‘네 가지 공’ 교설을 중관의 공/공성 개념에 반한 새로운 사상학적 해석 시도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PK의 심청정차제는 밀교 수행 단계 가운데 ‘경험의 영역에 대한 기술’을 전제하여 성립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전문용어들은 수행자의 마음작용/인식이 청정해지는 가운데 일어나는 ‘실질적’인 과정들을 서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합하다. 그 대신 아리아 학파의 ‘사공’ 이론의 도입은 즈냐나파다 학파와의 차별화 맥락에서 다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즈냐나학파의 수행체계와 전혀 다른 구조를 지닌 아리야학파의 오차제가 현재 전승된 형태로 안착되기 전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해석되어 왔다는 점을 PK의 주석가들의 입장을 통해 정리해 보았다.

또한 중관의 위대한 논사들인 나가르주나, 아리야데바, 찬드라키르티 등의 이름이 아리야 학파에서 다시 부활하게 된 배경에는 아리야 학파에 속한 인물들이 기존의 전통 위에 자신들의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음을 논의해 보았다. 그들은 기존의 경전을 인용할 때 의도적으로 중관 논사들의 저작을 따로 구분하여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이 그러한 중관의 전통성을 포섭, 계승한다는 인상을 만들었다. 이러한 의도와 해석 전통은 즈냐나파다 학파의 뒤에 일어난 아리야 학파가 티벳에서 큰 영향력을 떨치며 주요한 학파로서 자리매김 하는 데 공헌한 주된 이유 중의 하나였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 각주를 통해 언급했듯이 이 학파들에 관해 연구되지 않은 문헌들이 산적해 있기에 지면상 간략하게 언급했던 다양한 바즈라야나의 논쟁들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를 통해 연구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이러한 기회를 계기로, 후기 밀교 문헌의 다각적 연구 필요성이 재고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1. 약호 및 원전자료

〈약호〉

- CIHTS The Central Institute of Higher Tibetan Studies
- D. sDe dge edition
- ed. 기존 편집본 (edition)
- em. 교정 (emendation)
- ms. mss. 사본(manuscript, manuscripts)
- P. Peking edition
- NGMPP Nepal-German Manuscript Preservation Project

〈원전류〉

- *Āmnāyamañjarī*, ms. Rare and Ancient Tibetan Texts Collected in Tibetan Regions Series. 3 volumes. 123mm×430mm. Compiled by Institute of the Collection and Preservation of Ancient Tibetan Texts of Sichuan Province (四川省藏文古籍搜集保护编务院). Published by Chengdu: Sichuan Nationalities Publishing House (四川民族出版社), Beijing: Guangming Daily Press (光明日报出版社), October 2015.
- CMP *Caryāmelāpakapradīpa*, ed. Janardan Shastri Pandey (Ped.) : Sarnath: CIHTS, 2000 ; Ed. Christian Konrad Wedemeyer (Wed), *Āryadeva's Lamp that Integrates the Practices (Caryāmelāpakapradīpa). The Gradual Path of Vajrayāna Buddhism According to the Esoteric Community Noble Tradition*, New York: American Institute of Buddhist Studies, 2007. ; mss. Microfilm copy of photograph of Sanskrit manuscript made by Rahul Sakṛtyayan in Tibet (Ngor Monastery); paper, 69 leaves (final 27 containing CMP), Old Bengali script, 12.33 X 2.17 in., 9 lines per side, Bandurski no. Xc 14/30.
- *Cittaviśuddhiprakaraṇa*, ed. Christian Konrad Wedemeyer, *Vajrayāna and its Doubles: a Critical Historiography, Exposition, and Translation of the Tantric Works of Āryadeva*.

Doctoral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1999.

- *Jñānavajrasamuccayatantra*, (a.k.a. *Vajrajñānasamuccaya*) Tib. P. [3] (84) ca 290b2-294b5.
- GuSa *Guhyasamājatantra*, ed. Yukei Matsunaga, *The Guhyasamāja Tantra*, Osaka: Toho Shuppan, 1978.
- PK *Pañcakrama*, ed. Katsumi Mimaki and Toru Tomabechi, *Pañcakrama. Sanskrit and Tibetan Texts Critically Edited with Verse Index and Facsimile Edition of the Sanskrit Manuscripts*. Bibliotheca Codicum Asiaticorum 8. Tokyo: The Centre for East Asian Cultural Studies for Unesco, 1994.
- *Pradīpoddyotana*, ed. Chintaharan Chakravarti, *Guhyasamajatantrapradīpoddyotana-ṭīkāṣaṭkoṭivyaḥkhyā* ed, Tibetan Sanskrit Works Series 25, Patna: Kashi Prasad Jayaswal Research Institute. 1984; Tib. P [60] (2650) sa 1-233a7.
- *Pañcakramaṭippanī*, ed. Zhongzin Jiang and Toru Tomabechi, *The Pañcakramaṭippanī of Muniśrībhadaṛa. Introduction and Romanized Sanskrit Text*. Etudes asiatiques suisse, Monographies 23. Berne: Peter Lang, 1996.
- *Sekanirdeśapañjikā*, ed. Harunaga Isaacson and Francesco Sferra, *The Sekanirdeśa of Maitreyaṅātha (Advayavajra) with the Sekanirdeśapañjikā of Rāmapāla, Critical Edition of the Sanskrit and Tibetan Texts with English Translation and Reproductions of the Mss.*, Manuscripta Buddhica 2. Napoli: Università Studi Di Napoli “L’orientale”, 2014.

2. 2차 자료

〈논문〉

- 방정란 「불교 판뜨라 문헌이 전하는 샤이바(Saiva) 의례의 도입과 해석」, 『인도철학』 제 54집, 2018, pp.35-63.
- 苦地等流, 「Pañcakrama 研究 (1)―“五”次第の構成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研究』 40卷 2號, 東京: 日本印度學佛敎學會, 1992, pp. 895-892.
- 吉水千鶴子, 「Pañcakramaにおける三智・三空とprabhasvara タンラ仏敎における空性理解の問題点」, 『成田山仏敎研究所紀要』 11号, 成田: 大本山成田山新勝寺成田山仏敎研究所, 1988, 447-468.

- Christian Konrad Wedemeyer, “Vajrayāna and its Doubles: a Critical Historiography, Exposition, and Translation of the Tantric Works of Āryadeva”. *Doctoral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1999.
- Haraprasād Śāstrī, “The discovery of a work by Āryadeva in Sanskrit”. *Journal of the Asiatic Society of Bengal* LXVII-1, 1989, pp. 175-185.
- Harunaga Isaacson, “Ratnākaraśānti’s Hevajrasahasajadyoga (Studies in Ratnakārakśānti’s Tantric works I)”, *Le Parole e i Marmi: studi in onore di Raniero Gnoli nel suo 70° compleanno*. Serie Orientale Roma, XCII, ed. Raffaele Torella. Roma: Istituto Italiano per l’Africa e l’Oriente, 2001. pp.457-487
- Péter-Dániel Szántó, “Early Works and Persons Related to the So-called Jñānapāda School”,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 Volume 36/37 2013/2014 (2015), pp. 538-561.
- _____, “Jñānapāda”, *Brill’s Encyclopedia of Buddhism*, Leiden|Boston, 2019. pp. 264-268
- Ryugen Tanemura, “Guhyasamājantra”, *Brill’s Encyclopedia of Buddhism*, Brill NV, Leiden, 2015, pp. 326-333.
- Toru Tomabechi, Étude du Pañcakarma, “Introduction et traduction annotée”, *PhD dissertation*, Université de Lausanne, 2006
- _____, “Vitapāda, Śākyamitra, and Āryadeva: On a Transitional Stage in the History of Guhyasamāja Exegesis.” *Esoteric Buddhist Studies: Identity in Diversity.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soteric Buddhist Studies*, Koyasan University. Koyasan University, Japan, 2008, pp. 171-177.

The process of the development of concept of śūnya in Vajrayāna practice found in the *Pañcakrama* and its commentaries.

Bang, Junglan
Taisho University
Robert H.N. Ho Family Foundation Post-doctoral Fellow

Tantric Buddhism, although esoteric rituals and sādhanas are main features of its practice, is clarified by Tantric authors as it is established on the ground of Mahāyāna doctrines representing systems of Yogācāra and Mādhyamaka. This paper is based on my previous presentation in Vajrayāna section of a conference which was held in Korea in May, 2019 whose main theme is śūnya/śūnyatā in Buddhism. It starts from a question that what we can say on the first Vajrayāna's own interpretation of śūnya or śūnyatā? The four stages of śūnya and āloka described in the second chapter of the *Pañcakrama* would be a suitable example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second chapter is described as a work of Śākyamitra, and the text itself was also separately translated into Tibetan under the title of the *Anuttarasandhi*. This text teaches the step of purification of mind through four stages; śūnya, atīśūnya, mahāśūnya, and sarvaśūnya. It reflects that this doctrin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dissemination of Ārya school. Besides, the procedure of insertion of this work into the *Pañcakrama* can be traced by analysing positions of commentators about what exactly the five stages (pañcakrama) mean as it has been studied by Tomabechi 2006.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introduce exposition of Tantric Āryadeva and Candrakīrti on the practice of Cittaviśuddhikrama to show that they cite verses of Nāgārjuna without a clear statement to distinguish the

authorship of Mādhyamaka and Vajrayāna works ascribed to the same name. Therefore, their explanation can shed light on a manner of their attempt to enforce the authority of Ārya school.

Keywords

Pañcakrama, Tantric Nāgārjuna, Śākyamitra, Four stages of emptiness, Ārya school, Jñānapāda school

2019년 08월 01일 투고
2019년 09월 22일 심사완료
2019년 09월 23일 게재확정